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도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월 30일)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정치행보 · 무분별 논란 제기
"불교위상 추락 악순환 반복"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수년간 불교계 위상 실추 요인으로 지적된 각종 문제들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불교계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정체성이 모호한 불교종단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한 특정후보 지지 등 정치행위가 두드러진 가운데, 윤석열 대선후보 무속 논란으로 재조명된 유사불교 문제, 불교계 내부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보도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결과적으로 불교 위상을 추락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선거 때만 등장하는 종단 · 단체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각 분야별 지지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 관련 종단 및 단체의 특정후보 지지성명이 두드러지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지지선언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실례로 지난 2월 23일 대한불교조계율종 소속 종도와 신도 2만 5000명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대한불교조계율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도 아닐 뿐더러, 온라인 서도 최근의 지지선언 외에는 정보가 전무해 그 실체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이에 앞서 '부산 재가불자 3000명' '부산 불교도 1080인 상생모임' '불교계 20여 종단 대승보살 1080명'도 특정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가 불교계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거나, '불교' '불자'라는 명칭으로 이뤄지는 등 그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빈축을 산다. 게다가 특정 정책 공약에 대한 입장 표명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으로 모인 이들의 정치 행보라는 점에서 정교분리 논란과 함께 불편한 시각이 적지 않다.

선거판 네거티브 중심 '유사불교'

한국불교 최대종단인 조계종과 무관하지만 유사한 명칭을 가진 유사조계종, 또는 유사불교 문제도 최근 불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이 네거티브전으로 확산되면서 그 중심에 선 '건진법사'가 한국불교일광조계종 소속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광조계종이 한국불교종정협의회와 함께 2018년경 '수륙대재'라는 불교의례 명칭으로 살아있는 소를 제물로 사용하는 등 잔혹 행위로 사회적 뭇매를 맞으면서, 불교를 향한 인식왜곡을 우려하는 시각도 불거져 나온다. 한국불교종정협의회 역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무관한 별개 조직이지만,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불자들에게는 불교단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는 2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권력

대선 국면 이어지는 지지선언
상당수 실체 모호 종단 · 단체
선거판 등장 유사조계종 물의
'무속'임에도 스님 · 법사 거론

상왕 · 바지종정 등 비하 · 왜곡
일반 언론서는 가십으로 '화제'
안거 후 前총무원장 사진 공개
'장발'이유로 종법 위반 고발도
불교 정서 역행 비판여론 거세

뒤에서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려는 유사불교집단, 사이비 종교집단들을 지혜의 눈으로 감시해 이들의 준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의혹제기 · 보도행태

전국승려대회 전후로 크게 증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왜곡 또한 불교 위상을 흔드는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스님들을 '정치승' '권승'으로 비하하는 것을 넘어,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정예하를 '바지'로,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실세' '상왕'으로 지칭하는 모습이 두드러진 모양새다.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주장들을 공중파 등 일반 언론들이 무분별하게 수용해 기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前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고발된 사안이 일간지 등 언론에 흥미성 기사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발', 즉 삭발을 하지 않았기에 승려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고발 건과 관련 불교계 내부에서는 비판 여론이 높다. 특히 고발자인 허정 · 도정 스님이 고발 근거로 자승 스님이 3개월간 무문관 정진을 한 직후의 사진을 공개해, "안거 직후 수행자의 사진을 '장발'이라고 공개한 것 자체가 사실상의 조롱이며 도를 넘은 행위"라는 시각이 많다. 안거기간 혹은 토굴에서의 용맹정진 중에는 수행에 매진하기 위해 삭발하지 않고 승복 또한 갖춰 입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계종 승려법 제49조 2호에 따르면 '속복 ·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자승 스님의 경우 안거해제 직후 사진 외에는 장발모습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항시 승복을 착용했다는 점에서 규정상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허정 · 도정 스님의 주장이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 언론에 '조계종 실세, 장발(長髮)로 고발'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당사자 명예훼손 및 불교계 위상 실추 등 추가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병두 문화체육관광부 前 종무관은 "근래 선거판 등에서 불교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불교계 내부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야기되는 각종 논란이나 문제들이 외부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행태에 대한 현실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느 종교든 내부적으로 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 전략적인 행보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가십거리로 확대 · 재생산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불교위상을 흔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요인으로 축적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총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봄이 오고 있다 남녘으로부터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온 통도사 자장매가 마침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사진은 2월 23일 모습) 올해는 예년에 비해 약 한 달여 늦은 개화다. 하지만 늦어서 더 반가운 것일까. 하나 둘 피어나는 꽃잎들이 지나는 대중의 발길을 돌려세운다. 봄이 오고 있다. 통도사 자장매는 통도사 대중이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영각 앞에 심은 매화나무이다. 율사의 호를 따서 '자장매'라고 했다. 양산 통도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 함께 견인"

생명나눔 · 本紙 21일 업무협약
'생명나눔 희망선물' 공동 기획



2월 21일 제휴협약 체결직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사진 오른쪽)과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현대불교신문(대표 김재진)이 2월 21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중앙본부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양 기관의 업무교류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님은 "장기기증 서약과 같은 공익활동은 홍보가 중요하다"며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대불교신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성과를 홍보하고 후원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단체로, 스님과 불자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준다"며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펼치는 아름다운 활동을 적극 보도해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생명나눔을 위한 기부문화가 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현대불교신문 임직원이 동참한 장기기증 서약서를 생명나눔 측에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기증 서약이 많이 줄어든 만큼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현대불교신문은 3월부터 올해 말까지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각종활동과 주요 행사를 심도 있게 보도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연등회 율동 영상 공모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연등회 율동 보급을 위한 '2022 연등회 율동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공모접수는 3월 21일부터 28일까지며 유튜브에 올라온 '2022 연등회 율동영상'을 따라서 연습 후 촬영 · 편집해 신청서와 함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사 령

명) 편집국 취재부 부장대우
송 지 희 기자 이상 1명
2022년 3월 1일 부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5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한마음연구』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한마음연구』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게재 완료 시)

제4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12회 계절발표회 개최 ◎
● 일시 : 2022. 3. 19.(토) 13:30~17:4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 좌장 : 안성두(서울대)
□ 제1주제 (『범망경』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
발표 : 법장 스님(해인사승가대학)
논평 : 1. 이자랑(동국대) 2. 고승학(금강대)
□ 제2주제 (대행선의 사상적 체계와 그 의의)
발표 : 김재권(능인대학원대학)
논평 : 1. 이상호(서강대) 2. 이석환(동국대)
※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